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보도시점: 2026. 5. 27.(수) 12:00 배포: 2026. 5. 27.(수) 12:00

‘묘역 정화활동’으로 호국정신 계승하고, ‘현충원 현장 상담’으로 보훈가족 보듬는다.

- 국민권익위, 호국보훈의 달 및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묘역 정화활동 및 83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대상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6월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집중 민원 신청 기간도 운영

【관련 국정과제】 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 및 제71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83만 보훈 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묘역 정화활동’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호국정신의 계승을 위해 매년 무연고 묘역을 찾아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매년 현충일에 현장 상담장을 운영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해결하고 있다.

- 먼저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오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직원 30여 명이 국립서울현충원 47번 묘역을 찾아 정화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834기의 비석을 정성스럽게 닦고 태극기를 꽂으며,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끝까지 기억하는

국가'의 소명을 이어갔다.

- 두 번째로 현충일인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 만남의 집 앞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상담에는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현장 상담장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부터 국립묘지 안장 관련 문제까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6월 한 달간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이하여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고충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조사관이 직접 상담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호국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황인선 (044-200-7361)
		담당자	사무관	김문영 (044-200-7366)



#국민권익위#고충민원#고충처리#호국보훈의달#현충일#국립묘지#6.25전쟁#전몰군경#군사오부즈만#달리는국민신문고#국립서울현충원#보훈